

“108배 했더니 새사람 된 것 같아요”



▷ 찬불동요 발을 부리며 율동을 보여준 1학년 어린이들의 장기자랑 모습은 그대로 천진동자이다.



▷ 선생님이랑 스님처럼 함께 어울린 공동체놀이 어린이들은 즐겁기만 하다.



▷ 도명스님(청량사)의 지도로 참선심매에 빠져든 모습은 영락없는 문수동자이다.



▷ 식판발우공양 시간이 매우 열속하다. 마치 출가수행자가 된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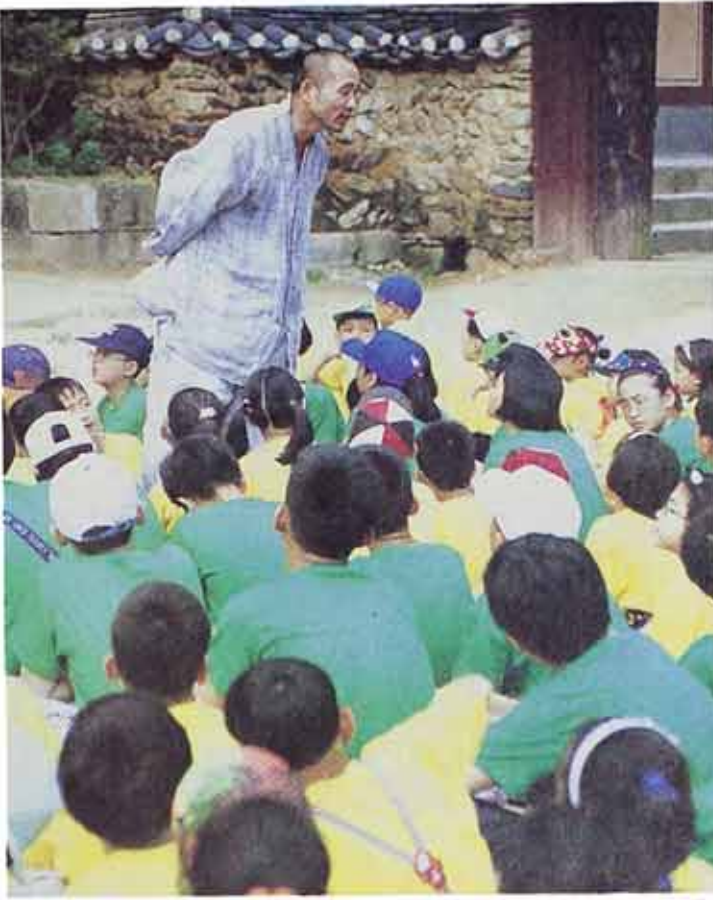


▷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어린이들이 내일의 꿈을 그렸다.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장'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하고 선재이벤트(실장 이성훈)가 주관한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가 7월23일~25일 신록사, 목아불교박물관, 경수사, 백령사, 에버랜드 등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2백50여명의 어린이들은 우리 전통문화와 관습을 108배, 참선, 발우공양 등을 체험하는 등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편집자 주>

“우리 문화는 뿌리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우리 문화는 뿌리입니다.” “우리 문화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듯이 우리 문화를 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캠프에 가서 우리 문화에 대해 잘 배우고 오세요.” 입재식에서 덕신스님(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의 격려를 간직하며 새싹불자들은 7월23일 오전11시 조계사를 떠나 불교나라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로 출발했다. 불교나라의 첫 관문은 여주 신록사(주지 세영스님). 극락보전 앞에 정렬해 아바다라(가부좌)를 하고 앉은 어린이들은 세영스님의 공부살하는 법에 대한 설명에 더위도 잊고 귀를 뚫듯 모은다. 순간적으로 강렬해 진 햇빛에 꺼지조차 그늘로 숨어버린 신록사 경내에 스님의 법문만이 풍경소리와 어울려 울려 퍼진다. 어린이들은 아미타삼



▷ 공부 살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신록사 주지 세영스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새싹불자들.

새싹불자 2백50명 '심신수련'

- 첫째날 신록사 역사공부 · 108배 정진
- 둘째날 찬불가 경연 · 에버랜드 구경
- 셋째날 수영놀이 · 아미타전시회 관람

존불을 모신 극락보전, 나용선사 부도 및 석등, 지장보살을 모신 명부전, 지공·나용·부학대사의 영정을 모신 조사당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신록사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공부했다. 열심히 배지도까지 그려가며 필기를 하는 어린이들은 이미 어려운 불교의 벽을 허물기 시작하고 있었다. “부·다·피·아 어린이.” “네·네·넵넵넵!” 힘찬 대답을 뒤로 하며 목아불교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갖가지 불보살상들을 둘러보며 어느새 다양한 부처님의 모습이 잊어지는 아이들, 목아박물관에서의 아쉬운 한 때를 뒤로하며 첫발을 보낼 속도로 향했다. 용인 백령사(주지 일원)에 묵은 규치반을 비롯한 저학년들은 주지스님의 지도로

이러 고대하고 고대하던 캠프의 하이라이트 캠프 파이어 ‘불보살, 폭죽거사와 이밤을’ 시간. 영화 ‘일리단’의 주제곡이 은은히 흐르는 가운데 장작에 불이 붙는 순간 ‘공경 따따따...’ 30여발 폭죽의 오색 불꽃이 밤하늘을 휘황찬란하게 수놓았다. 캠프 파이어에서는 교사와 어린이들이 한마음이 되어 찬불동요와 율동을 하며 마지막 밤의 아쉬움을 달랬다. 특히 불길의 사그라들 무렵 모닥불을 중심으로 빙 둘러 서서 한사람 한사람 손을 내밀어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은회 악수’를 나눈 시간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셋째날, 아이들은 온통 수영장 생각으로 눈을 땀다. 캐리비안베이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일제히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파도에 몸을 실었다. 불교나라의 마지막 관문은 호암미술관에서의 아미타전 관람. 아미타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 소곳이 합장도 해본다. 이어 미술관 옆 전통정원 회관에서 각 학년별로 우수참가자 시상식과 함께 캠프 회향식을 가졌다. 2박3일의 행복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오랜만에 단잠에 빠져든 새싹불자들의 얼굴은 마치 꿈 속에서 온 수줍다와 놀고 있는 듯 고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글=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사진=고명배 기자

인상에 남아요

- ▷ 우리집은 재천인데 스님이 보내주셔서 민지랑 같이 캠프에 왔어요. 이번엔 많이 울어서 우리 스님이 오셨지만 내년에는 울지 않고 많이 배울게요. <이만규·재천 남천초등 1>
- ▷ 캠프파이어 때 언니 오빠랑 ‘은회 악수’를 했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주연화·의정부 효원초등 2>
- ▷ 용기를 가지고 힘을 쓰면 어려운 것은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보세요. <김이수·서울 연촌초등 2>
- ▷ 캠프에 와서 좋았어요. 밥도 맛있었고 캠프 파이어도 재미있었어요. <최승기·포천 내촌초등 2>
- ▷ 캠프에 와서 기뻐했습니다. 예쁜 선생님과 춤을 추니 스트레스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오고 싶어요. <홍이경·부천 상동초등 3>
- ▷ 우리 모두 부처님이 되어 내년엔 만났으면 해요. <박정은·안양 덕원초등 3>
- ▷ 오늘 불꽃놀이를 할 땐 나도 저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발명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경원·광명 안서초등 3>
- ▷ 참선을 했는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하게 살겠어요. <하법정·서울 재동초등 3>
- ▷ 부처님 길을 걸을 때는 부처님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어떤가를 알고 이런 것을 잘 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처님은 위대하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평생 동안 잊지 않겠어요. <주현우·고양 화정초등 3>
- ▷ 내가 지은 죄를 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서연·서울 중원초등 4>
- ▷ 우리를 밥이 아니라 풀만 먹여놓고 일만 시켰어요. 다음에 올 땐 맛있는 밥 해주세요. <손선민·서울 처원초등 4>

“협동정신 배우고 자신감 생겼어요”



▷ 경수사에서 108절화하는 어린이들 모습.

▷ 밥 좀 맛있게 해주세요. 너무 근기잡는 것 같아요. <남은·서울 중원초등 4>
- ▷ 공양에서 풀을 많이 먹은 게 좋았어요. 채식할 하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공양에서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주는 것은 나빠요. 자기가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으면 배탈이 나기 때문입니다. <권진아·서울 대동초등 4>
- ▷ 나는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부모님께서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니 재미있었어요. 2회 부다피아 캠프에는 동생과 함께 올게요. <이정환·수원 정천초등 5>
- ▷ 절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남김없이 다 먹어야돼 좀 힘들었어요. <고정순·수원 원천초등 5>
- ▷ 나같은 성격에 과연 캠프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어요. 예전 캠프 때에는 매우 늦게 친구를 사귀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제 캠프를 열심히 하고 보니 달라졌어요. <이승주·고양 기림초등 5>
- ▷ 캠프를 통해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가 배웠고, 중요성과 필요성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 절을 둘러보면서 진실과 불교의 아기를 들은 것이 재미있었어요. 계속 절에 다녀서 불교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싶어요. <조성일·수원 원천초등 5>
- ▷ 밥을 먹을 때 내기 먹고 싶은 반찬을 먹지 못해 엄마 아빠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부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기 됐어요. <홍예진·파주 용연초등 5>
- ▷ 캠프에서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에 가면 엄마한테 2박3일 동안 배운 것을 다 이야기해 드려야지. <윤은비·의정부 동우초등 5>
- ▷ 108번 절을 한 것이 제일 좋았어요. 나중에도 108배를 해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어요. <김지양·서울 마포초등 6>
- ▷ 기합을 받을 때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웠습니다. <자윤하·서울 흥은초등 6>
- ▷ 절에서 108배를 한 것이 정말 재미있었고(죄를 씻어내서) 초등학생으로서의 마지막 캠프라 더욱 즐거웠고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이태승·서울 서교초등 6>

美 캘리포니아에서 온 신루비앙

“미움 없애는 108배에 매료”



그 마음이 없어질거라고 하셨어요. 친구 중에 미운애가 생겨서 108배를 또 했어요. 108배 했더니 미운 감정도 많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미국에 가서도 108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도 잘 해결할 것 같아요.

기독교신자로 참가한 권여정양

“불교도 정말 좋은 종교네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경수사에서 해본 108배를 ‘내가 잘못했구나’ 느낄 때마다 집에서 할게요. 108배를 해보니 마음이 깨끗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제1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를 후원·협찬해주신 사찰과 단체 그리고 동참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협찬: 대한불교진각종·도선사·불교조각원·(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현대프로덕션



▷ 목아불교박물관에 전시된 불·보살상 앞에서 합장을 하며 참회하는 마음가짐을 가졌다.



▷ 캐리비안베이 피도폴링에서 친구들과 물놀이에 여념이 없는 어린이들.